

지역 소식통

김제시, 상반기 농지정보 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농지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27일 상반기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농지정보시스템 교육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이상훈 과장을 초빙했으며, 기존 농지업무에서 공적장부의 역할을 하는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지대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은 농지대장 개요, 농지대장 발급 및 관리처치, 전산시스템 활용 및 농지대장 중점정비 실습 등을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농지대장은 기존 농지업무의 전면개편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 15일부터 필지별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돼 농지대장의 중점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김제시 농지대장 정비 건수는 3만3,285건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 능력이 많이 증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보건소,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3곳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어린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해 김제 중앙유치원, 성만유치원, 솔로몬 어린이집 3곳을 2024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는 어린이가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알레르기 질환의 관리와 치료 등을 지원하는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다.

보건소는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에 운영 안내서를 배포하고, 알레르기 질환 교육자료 및 천식 응급키트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해 전문성 있는 알레르기 질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김제시, 2025년 맞춤형 투자전략으로 지역 활력 증진 도모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인구 감소 문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2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이찬준 부시장이 주재했으며, 관련 부서장과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중간보고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요 설명, 지역 여건 및 현황 분석, 기금사업 투자계획 보고,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투자계획은 정주여건 조성, 삶의 질 향상, 생활인구 확대라는 3개의 중점 분야에서 발굴된 10개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제시는 인구 활력 추진 전략으로 △지역특화형 미래전략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역수요 맞춤형 생활인프라 조성으로 정주인구 유입, △김제형 로컬 참살이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 △지역특화 콘텐츠 기반 체험·관광 거점 활성화, △로컬 힘! 문화·여가·예술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찬준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완하여, 김제의 인구 감소 문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계획 수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우수' 등급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성주는 2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9일 관내 사회적기업 8개소를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고용노동부)에 따라, 올해부터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패러다임이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적 재고'로 전환돼 인건비 등 확립적 지원체계가 전면 축소되며,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결과를 반영해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관내 사회적기업이 변화된 정책방향에 맞춰 지속가능한 성장

/김제=곽노태 기자

사회적기업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김제시, 올해부터 SVI 평가결과 반영 차등 지원

을 이뤄낼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지표 컨설팅을 올해부터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사회적가치지표 이해, 지표별 신청서 작성 컨설팅 등으로 구성돼,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좋은 지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 코칭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김제시 사회적경제기업이 변화되는 체제에 발맞춰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난 28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벨기에 왕립 루벤대학 티그란 마이테시안 교수 바이올리니스트를 초청해 클래식 음악회가 열렸다.

완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안전관리요원 근무초소 2개소 설치... 7월 13일부터 19개소 고정 배치

완주군이 본격적인 수상안전 대책기간(6월1일~8월30일)에 앞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에 나서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안전관리요원 근무 초소를 2개소 설치하고, 관리지역 안전시설 및 장비 점검 등 본격적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7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자체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고산면, 운주면, 동상면 일대 안전관리구역

19개소에 34일간 안전관리요원(42명)을 고정 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방서, 경찰서 등과 합타인을 구축해 업무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날씨가 점점 무더워짐에 따라 물놀이객이 예년에 비해 빨리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2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 강화와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관리실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시·도와 228개 시·군·구 총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배출업소 점검률, 위반율 및 오염도 검사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배출업소 수를 고려해 5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한 평가로 점검률, 위반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신규 평가항목인 대기 및 수질 오염도검사 57건을 실시해, 45개 지자체가 속한 그룹 중 5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지속적인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배출업소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해 김제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사회복지사와 함께 하는 힐링 음악회

5월 가정의 달 끝자락에 완주군에서 사회복지사와 가족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회가 열렸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날(지난 28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린 음악회는 완주군사회복지사협회,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완주지역자활센터의 후원으로 벨기에 왕립 루벤대학 티그란 마이테시안 교수(바이올리니스트)를 초청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200여 명의 완주군 사회복지종사자와 가족들이 함께했으며, 대

중에게 익숙한 곡을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협연으로 선사해 큰 박수를 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귀한 음악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완주군사회복지사협회와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완주지역자활센터에 감사 드린다"며 "음악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는데 이번 음악회를 통해 일상의 여유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구이 생활문화센터, 문화누림 공모 선정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가 한국문화원연합회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은 어르신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체조와 미술이 어우러진 융복합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모사업 선

정으로 사업비 총 900만 원을 확보한 구이생활문화센터는 문화센터 방문이 어려운 면민들을 직접 찾아가 마을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을 간의 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체조와 손·발도장 미술이 합쳐진 융복합 문화프로그램을 총 20회 진행할 예정으로, 두방경로당에서 6월 초부터 시작한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